

2023년 1월 29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4 주일 (해외 원조 주일)



전담신부 : <공석>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1 월]



복음화 지향 : 교육자들

교육자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되어 경쟁보다는 형제애를 가르치고 특히 가장 어렵고 힘없는 이들을 돕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상단 우측이미지 클릭)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4주일이며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과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약속하셨으니,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복음의 작은 이들과처럼 신앙이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질병과 기아, 전 지구적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로 다짐하며 미사에 참여합니다.

제1독서 스바니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3; 3,12-13
 <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라.>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 마태 5,3)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6-31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5,12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5,1-12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영성체송 시편 31(30),17-18 참조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곰곰이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예수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한재호 루카 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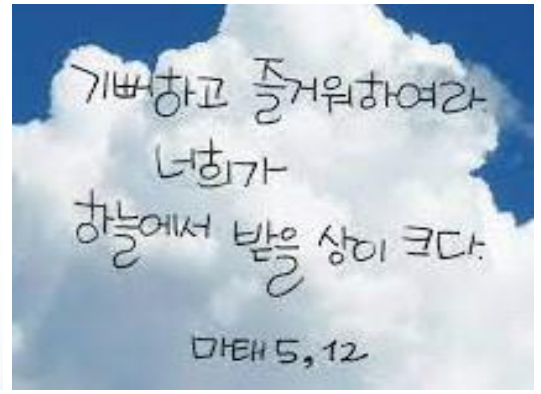
행복의 기준

예수님께서 '행복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 슬픔, 온유함, 의로움, 자비, 깨끗한 마음, 평화, 박해받음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곳은 시편 1 편입니다. 이 시편에 따르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하며,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시냇가까지 뿌리를 뺀 만큼 수분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도 같습니다. 곧 돈, 명예, 권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으니 그들이 성취한 행복은 그만큼 가볍습니다. 이처럼 시편 1 편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뿌리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 줍니다.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곳에 뿌리를 둔 이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시편에 비추어 행복 선언을 다시금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내용은 행복을 위한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뿌리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오는 가난, 슬픔,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온유함, 의로움, 자비, 깨끗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냇가이신 하느님께 우리의 뿌리를 뺄 수 있는 것입니다.



| 연중 제 4 주일 (해외 원조 주일) 복음 필사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Four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Gospel verse.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한국카리타스 2022년 지원 현황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1월 29일 해외 원조 주일을 앞두고 전년도 해외원조 지원 내역을 결산, 발표하였습니다. 30개 국가의 62개 해외원조 사업에 45억 7,927만 7,399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역] <https://tinyurl.com/2kaanf7v>

시드니 성당 말씀나눔(그룹성경공부) 안내

[과목]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기간] 2023년 3월 ~ 11월
[신청기간] 1월 29일(주일) ~ 2월 26일(주일)
[교재비] 30불 (※등록비 10불은 공동체 지원)
[참여공동체] 캔버라, 시드니, 버크힐
[문의 및 접수] 주정자 루치아 (0410 106 633)



2022년 제 31회 해외 원조 주일 담화 -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

1월 마지막 주일은 한국 천주교회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는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올해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소외받는 이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과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우리'만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주교 시노드 개막연설에서 "하느님께서 제 삼천년기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바로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여정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노력과 더불어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곳이 어떤 방향인지 자문'하자고 촉구하셨습니다. 올해 해외 원조 주일에 모금된 금액은 우리 공동체에서 매월 둘째주 토요일 식사준비 봉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랑의 선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이 여정에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정성어린 참여를 바랍니다. [담화문] <https://cbck.or.kr/Notice/20230004?gb=K1200>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BHKNOgIck> [후원] 우측이미지 클릭



축성 생활이란?

교회는 성탄 다음 사십 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을 주님 성탄과 주님 공헌을 마감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냅니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386년부터 이 축일을 지냈으며, 450년에는 초 봉헌 행렬이 여기에 덧붙여졌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주님 봉헌 축일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여, 주님께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축성 생활의 날에 수도 성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축성 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권고합니다. 한편 한국 천주교주교회의는 2019년 12월 2일 그전까지 '봉헌 생활'이라고 쓰던 'Vita Consecrata'의 우리말 용어를 '축성 생활'로 옮기는 원칙을 세우고, '봉헌 생활의 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2023년 축성 생활의 날(2월 2일) 담화

올해 축성 생활의 날을 맞이하여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회장)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야고보 아빠스께서는 세상사람들은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의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올해는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살면 좋을까에 대해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여러 예시를 드시어 "친절"이 중요한 자질이라시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차갑고 매우 불친절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사회가 차갑다면 우리 축성생활자들이 따뜻하게 답해야 합니다. 우리 축성생활자들은 하느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언제나 주님의 힘으로 모두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담화문 전문] <https://cbck.or.kr/Notice/20230028?gb=K1200>



| 연중 제 4 주일 (해외 원조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㉔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라도 줍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8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㉔

문풍지 같은 단열재로 열 손실 방지하기
 → 11,90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8CK)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2023 해외 원조 주일 홍보
 동영상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힘들어 하고 있는 지구촌 이웃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성경과의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23 강]
 구약성경 신학의 핵심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신명기 | 입문

빛고을청사목 tv

함께 걷는다는 것

김영수 신부 | 배상원 신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공소예절 참례자수

1월 15일	성인 28 아이 11	1월 22일	성인 40 아이 14
--------	-------------	--------	-------------

□ 우리들의 정성 (1월 21일(토)~27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요한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교무금 \$465 (10 가정), 기부금 \$25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1월 29일, 연중 제 4 주일, 해외 원조 주일) 허준 안토니오, 이민정 글라라
 (2월 5일, 연중 제 5 주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29일) 사목회 → (2월 5일) 요한반 → (12일) 루카반 → (19일) 마르코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매월 첫째주 식사): (29일) 다과 → (2월 5일, 루카반) 식사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생명을 위한 기도 ♡

https://maria.catholic.or.kr/mi_pr/prayer/prayer.asp?pgubun=6&gubun=w



♡ 매일 만나는 기쁜소식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